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우안순¹, 백진아^{2*}

¹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An-Soon Woo¹, Jina Paik^{2*}

¹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MCAPS) 6차년도 자료 중 다문화청소년 1,323명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해 경로분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데 반해,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이고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학업중단의도, 이중문화수용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parent-rear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between two variables. For the purpose, 1,323 subjects selected from the sixth year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MCAPS) were analyzed. The data was verified by using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e acceptance decreased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creased it. Second, biculture accepta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hird, attitude th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was partly mediated by biculture acceptance. On the basis of above findings, the practical engagements to enhance biculture acceptance and prevent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ere suggested.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Biculture Acceptance

*This article is revised of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An-Soon Woo(2019).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October 5, 2020

Revised December 9, 2020

Accepted January 20,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1

1. 서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령기를 맞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122,212명으로 2017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다문화 학생 비중은 2.2%로 처음으로 2%에 진입했다[1].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층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 상태에 처하고 있는 자녀는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2].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과 학업중단은 특정 시기의 단순한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발달과정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비단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며 그를 둘러싼 가족과 또래,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5]. 미래의 노동력 감소와 생산력 손실,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불안정한 고용[6,7] 및 인종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실제 학업을 중단하기 전 미리 학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학업중단의도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학교를 중단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3,8].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으로서는 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소외감, 대인관계 실패와 학습실패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 학대 등의 양육태도가 보고되고 있다[9,10]. 이와 함께 개인요인으로 유학, 출국, 질병 등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 한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11].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란 주로 부모나 중요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일정한 행동경향성을 의미한다[12].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자녀가 처음 접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자녀의 전 생애기간 동안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한다면 청소년은 자

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여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져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낮추고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자신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자녀를 방치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무관심한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행동에 대해 규제받는 것을 싫어하며 빨리 독립해서 사회로 가고 싶은 감정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분석한 Woo의 연구[13]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따라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분류하여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중재요인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들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중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양쪽 부모의 다양한 문화적 습속과 가치관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중문화수용[10] 태도는 청소년의 미래 계획과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적응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이중문화수용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 양육환경이 필요하다. 사회적 반영이론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는 편견적인 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치를 반영한다[14]. 부모의 처벌적이고 방임적이며 지배적인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편견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15], 부모로부터 지각된 인식과 편견은 자녀의 청소년 이후까지도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16].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감소시킨다[17].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의 방식 여부에 따라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학업중단의도에도 의미있는 차이를 낼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적응력을 높여주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중도에 탈락하려는 학업중단의도를 낮춘다. 하지만, 부모가 부정적으로

양육하면 자녀는 이중문화에 대한 이해 및 언어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와 관계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집단따돌림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 언어이해력 부족 등도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꼽을 수 있다[18-20].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업중단의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거나[3,21,22],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23] 있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여 사전개입을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와 관계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관련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의 예방적 사전개입을 위한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이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이를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외생잠재변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변수이며, 내생잠재변수는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학업중단의도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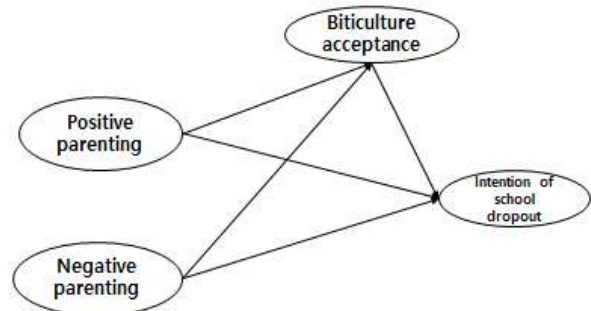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6년 6차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6년 6차년 조사 자료에서는 다문화 가구 1,322가구 중 청소년 1,3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으며, 데이터는 외국인 부모용, 한국인 부모용, 청소년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32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 척도는 Lee et al.[24]가 개발한 문항을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다문화학생들의 생활 및 태도와 관련된 문항만을 취합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범주가 같은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등, 무기력감 및 가정 내 갈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해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학업중단의도의 Chronbach's α 계수는 .729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Heo[25]이 개발한 척도지표 중에서 평소 부모님의 양육과 관련된 항목을 Kim et al.[26]과 Lee et al.[27]가 수정한 것을 다문화청소년 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감독, 후자는 방임의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긍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3문항,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62와 .816으로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는 Nho & Hong[28]가 개발한 질문문항 중에서 한국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 관련 항목을 수정해 다문화 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보다 낮은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를 제외한 9문항의 총합으로 잠재변인을 생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Chronbach's α 계수는 .750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경로분석 등을 설명하기 위해 SPSS WIN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을 분석했다. 둘째, 주요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주요변수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행하였다. 넷째, 간접(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Bootstrapping analysis를 적용했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651명(49.2%), '여학생' 672명(50.8%)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가 각각 623명(47.1%), 657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323)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651	49.2
	female	672	50.8
mother's education	junior high or lower	146	11.0
	a high school graduate	623	47.1
	college(2-3-year graduation)	336	25.4
	university (graduated in four years) and above	218	16.5
father's education	junior high or lower	386	30.6
	a high school graduate	657	52.0
	college(2-3-year graduation)	84	6.7
mother's nation	China	333	25.2
	Philippines	343	25.9
	Japan	456	34.5
	other	191	14.5
expected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252	19.0
	university	1,032	78.0
	graduate school	39	2.9

어머니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이 456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필리핀' 343명(25.9%), '중국' 333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가 1,032명(7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이하' 252명(19.0%), '대학원' 39명(2.9%)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이 3.211(표준편차=.545)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1.748(표준편차=.5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 역시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주요변수는 정규분포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attitudes	①	3.211	.545	-.066	-.007
	②	1.748	.511	.340	-.276
	③	2.896	.395	.014	.894
	④	1.900	.512	.175	-.192

① positive parenting ② negative parenting
 ③ biculture acceptance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r=-.369$, $p<.01$), 학업중단의도($r=-.257$, $p<.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r=.279$, $p<.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369**	1		
③	.279**	-.233**	1	
④	-.257**	.297**	-.211**	1

** $p<.01$. ① positive parenting ② negative parenting
 ③ biculture acceptance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r=.29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이중문화수용태도($r=-.233$, $p<.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r=-.211$,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4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3.4.1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본 연구의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인과 잠재변인간의 관계와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의 수, 그에 따른 관측변인들이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이 행해지는 것이다[29].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학업중단의도를 포함한 측정변수들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기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3804.422$, $df=269$, $p=.000$, $SRMR=.101$, $TLI=.677$, $NFI=.696$, $CFI=.711$, $RMSEA=.100$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델 적합도가 걱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초기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집중타당도가 다소 떨어지는 변수(반올림하여 $\beta<0.4$)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보고 공분산을 통해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수정 측정모델의 분석결과, $\chi^2=768.267$, $df=160$, $p=.000$, $SRMR=.062$, $TLI=.919$, $NFI=.916$, $CFI=.932$, $RMSEA=.054$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index	χ^2	df	p	SRMR	TLI	NFI	CFI	RMSEA
initial model	3804.422	269	.000	.090	.677	.696	.711	.100
modified model	768.267	160	.000	.062	.919	.916	.932	.054

3.4.2 구조모형

본 연구모델에 대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조모형은 적합지수 값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유지하고 변인 간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적합지수 값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회귀계수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요 잠재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B=-.189$, $t=-5.456$, $p<.001$).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언제 귀가 할 것인지 등 자녀의 일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의도하는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B=.373$, $t=9.656$, $p<.001$).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없거나, 자녀보다 본인의 바깥일에만 집중한다고 느낄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Table 5. Estimated Model

Variable	B	β	S.D	C.R.	p
positive parenting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207	-.189	.038	-5.456	***
negative parenting → intention school of dropout	.374	.373	.039	9.656	***
positive parenting → biculture acceptance	.189	.184	.039	4.826	***
negative parenting → biculture acceptance	-.128	-.136	.038	-3.354	***
biculture acceptance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176	-.165	.036	-4.888	***
Proposal Model Suitability	$\chi^2=768.267$, $df=160$, $p=.000$, SRMR=.062, TLI=.919, NFI=.916, CFI=.932, RMSEA=.054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beta=.184$, $t=4.826$, $p<.001$). 즉, 부모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가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beta=-.136$, $t=-3.354$,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방치할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양쪽 부모의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태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beta=-.165$, $t=-4.888$, $p<.001$). 즉,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양쪽 부모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즐길수록 학교생활 규계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학업중단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결과와 추정된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로 확인되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에는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3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선행변인들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 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직접효과($\beta=.184$, $p<.001$)가 있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beta=-.165$, $p<.001$)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beta=-.189$, $p<.001$)가 있고, 간접효과($\beta=-.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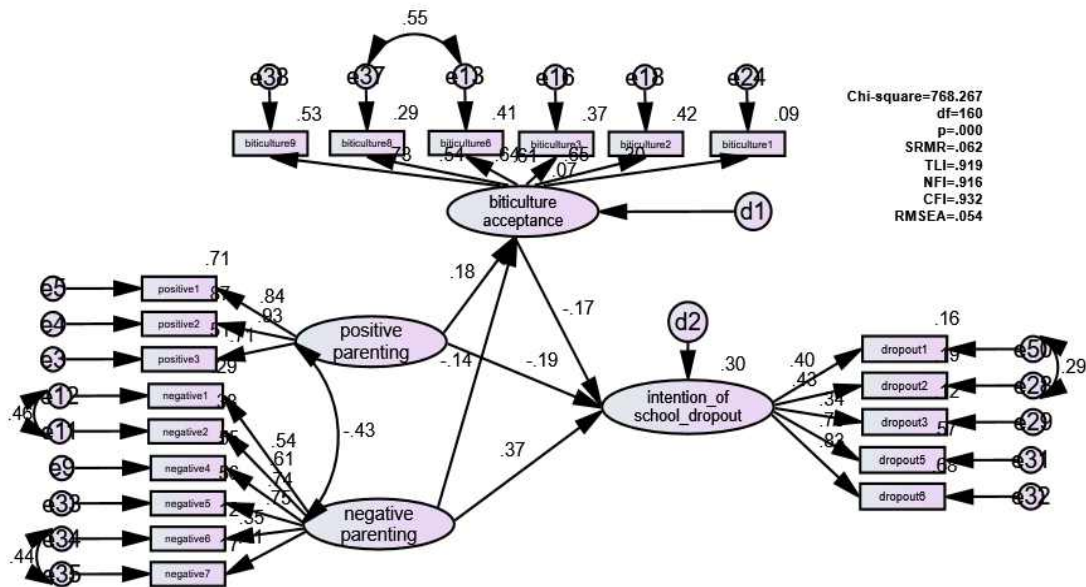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p<.05) 및 총효과($\beta = -.219, p < .05$)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① → ③	.184***	.184***	
③ → ④	-.165***	-.165***	
① → ③ → ④	-.219*	-.189***	-.030*
② → ③	-.136***	-.136***	
③ → ④	-.165***	-.165***	
② → ③ → ④	.395*	.373***	.022*

*p<.05, **p<.01, ***p<.001 ① positive parenting ②negative parenting ③ biculture acceptance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직접효과($\beta = -.136, p < .001$)가 있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beta = -.165, p < .001$)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beta = .373, p < .001$)가 있고, 간접효과($\beta = .022, p < .05$) 및 총효과($\beta = .395, p < .05$)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낮추고 낮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4. 결론: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요인은 강화하고 부정요인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해 분석한 Woo[1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의 관계를 설명한 Cho[30]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am[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들과 대상을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도를 분석한 Nam[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점을 보였으나, 부모가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여주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관심과 감독에 기초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갖게 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여주고, 고양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힌, 농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1]와 동일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 수용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6,32]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33,34]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낮추고, 이중문화수용에 있어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심리/정서와 사고를 갖게 하여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폭을 좁아지게 하고, 이중문화수용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도를 높이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6]에서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을 낮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강점인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를 습득한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어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35]와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기 위해 프로그램 위주의 미시적 방안보다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탈 청소년 위주의 정책을 세분화하여 위기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영역별로 구체적인 맞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의 자녀 방임을 막을 수 있는 전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체와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체와 관공서에 근무하는 부모에게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이수증을 제출할 시, 승진이나 고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교육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기술과 학습계획,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소통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으로 대학의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성과 인성 고취를 기본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학교 교육의 역할과 재정립을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여주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자녀교육은 일방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상대방의 문화도 함께 배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및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서로 다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나라를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참여하여 그 나라

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 외 청소년들은 다문화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인식을 습득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함으로써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주목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미래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학업중단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반 청소년과 탈북대학생 및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업중단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의 긍정적 요인을 확장하려고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일반 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요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거나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지속과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하기 위한 긍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긍정요인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의도 연구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여 각각의 변수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지속에 있어서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중문화수용태도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학업중단의도 예방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연

구에서 보완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다문화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다문화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집단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차별성을 비교분석하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들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패널의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방어적 태도에 의해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이나 관찰법과 같은 형태의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응답자의 보다 솔직한 입장과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문화수용척도를 함께 포함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설명을 펼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중문화수용태도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학업중단의도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보다 다양한 삶의 측면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 [2] Hankyoreh Newspaper. (2018). <http://www.hani.co.kr>
- [3] Y. O. Nam. (201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8(4), 251-274. DOI: 10.19034/KAYW.2016.18.4.11
- [4] M. H. No., M. J. Heo & Y. S. Choi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Car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119-134. DOI: 10.7466/JKHMA.2015.33.2.119
- [5] I. S. Suh & O. S. Cho & S. O. Um. (2019). The Effect of Results of Early Youth's Self-Esteem and Depression is Life Satisfaction: Aggression Behavior Media Effec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53-163. DOI: 10.22156/CS4SMB.2019.9.6.153
- [6] E. J. Seol & O. B. Chung.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Levels of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2), 91-114.
- [7] H. J. Kim & M. S. Yang. (2017).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Ego-resil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23-24. DOI: 10.14400/JDC.2017.15.1.23
- [8] Y. H. Kim & B. Y. Choi. (2015).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 Dropout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145-175.
- [9] Y. J. Lee, R. K. Park & S. K. Lee. (2017). Acceptance Attitude and Psychological Adaption, School Adap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Inha Educational Reserch Institute*, 23(5), 347-372.
- [10] A-M. D. Nguyen & V. Benet-MartBnez.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DOI: 10.1177/0022022111435097
- [11] Seoul Public News. <https://go.seoul.co.kr/news/news>.
- [12] L. Berk. (2010).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M.A.: Pearson.
- [13] A. S. Woo (2019). The Effects of Positive/Negative Parenting Attitudes to Multicultural Students on Their Intention of School Dropout: Mediation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Depressio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 [14] D. Nesdale. (1999). Social Identity and Ethic Prejudice in Children. In P. Martin & W. Noble (Eds.), *Psychology and Society* (pp.92-110). Brisbane: Australian Academic Press.
- [15] S. H. Lee. (2018).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ongshin University.
- [16] S. Y. Kang. (2006). Qualitative Research on Changes in Conceptions of Disability by Non-Disabled Preschoolers in the Inclusive Classroom,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7(6), 123-148.
- [17] I. S. Jang & H. J. Lee. (2010). Factor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3(1), 55-87.
- [18] Y. E. Lee & H. H. Jung. (2015).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and the Impact Factors on the Phase in Adolescent's Behavior, *Korea Youth Counseling Welfare Institute*, 23(2), 253-276. DOI: 10.35151/kyci.2015.23.2.012
- [19] N. M. Hong & H. J. Park.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l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125-151.
- [20] D. Goebert. (2009).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Minorities, and Acculturative Stress. In S. Loue, & M. Sajatovic (Eds.), *Determinants of Minority Mental Health and Wellness* (pp. 125-148). New York, NY: Springer.
- [21] R. R. Kim & J. K. Lee. (2016). A Study on the Danger and Protection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Intention to Quit School -focusing o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53-81.
- [22] J. J. Han & J. Y. Hong.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Parenting Attitudes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3), 493-504.
- [23] I. S. Kim & S. E. Yu. (2015). A Study on Academic Withdrawal Factors and Support Strategies for North Korean College Students: Search fo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ungkyul University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9(3), 122-142.
DOI: 10.22446/mpisk.2015.9.3.006
- [24] J. Y. Lee., S. Y. Kang., H. J. Kim., Y. Y. Lee & E. J. Yang. (201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erceived by School Dropouts, *Korea Youth Counseling Welfare Institute*, 18(2), 228-241.
DOI: 10.35151/kyci.2010.18.2.014
- [25] M. Y. Huh. (201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26] J. K. Kim & H. J. Beak & H. J. Lim & G. O. Lee (201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7] D. H. Lee. (2016). Methods of Self-respect,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Multicultural Youth and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Technology*, 0(17), 544-55
- [28] C. R. Nho & S. H. Ki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Factors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0(39), 39-68.
- [29] J. P. Yu. (2015). The Study of Mediated Moderating Model and Moderated Mediating Model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Focusing on Satisfaction, Trust, Dependence and Commitment, *Journal of Product Research*, 33(4), 45-56.
- [30] E. J. Cho. (2012). How Parenting Influence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erm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15(1), 35-50.
- [31] E. K. Lee & S. I. Na.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itudes, Liberal Classroom Climate, Bicultural Competence, Academic Resilience, and Learning Flow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 *The Society of Korean Agricultural Education*, 50(4), 1-32.
- [32] J. H. Kwon & S. H. Lee. (2015). Testing Models of Relation to Parents' Rearing Attitud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 *The Research for Korean Youth Culture*, 0(44), 7-32.
DOI : 10.17854/ffyc.2015.10.44.7
- [33] S. H. Lee & W. S. Choi. (2008).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and Social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163-185.
- [34] Y. H. Moon & E. M. Ahn. (2010). The Influence of Bi-cultural Attributes of Children From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School Adjustment - Focused on northern Cholla province Rural A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0(33), 47-68.
UCI : G704-001921.2010..33.005
- [35] M. Y. Shim & D. N. Lee & J. O. Park. (2013).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apta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Mediating of Bicultural Adaptation,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0(25), 233-254.

우 안 순(An-Soon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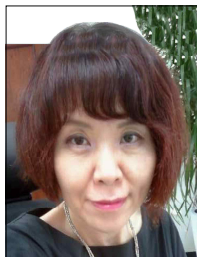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세대학교 디자인대학원(미술치료석사)
- 2020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장애인, 청소년
- E-Mail : annyung62@hanmail.net

백 진 아(Jina Paik)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